

115억원 들인 함평 광역상수도 6년째 방치

생활용수 수요 예측 잘못
감사원 주의조치 받기도
시설 가동 전망도 불투명

115억원을 들여 설치한 함평 광역상수도 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6년째 방치되고 있다.

수요예측 잘못으로 당장 필요하지 않은 광역상수도 시설을 설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함평군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009년 함평지역에 하루 5000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협약을 맺고 광역상수도 설치 공사를 착공해 2011년말 완공했다. 사업비는 국비 34억원, 수자원공사 81억원 등 총 115억원이 투입됐다.

무안군에 설치된 장흥댐 광역상수도 관로를 함평을 배수지까지 14.9km를 연결해 하루 5000t의 광역정수를 함평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간



함평 광역상수도 시설은 완공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수요예측 잘못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장흥댐의 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시설이 연결된 함평배수지.

효율적인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해 지역 간 용수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적도 있다. 상수도 시설의 사고나 이상 가뭄 등 비상시에 대비한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지난 2011년말 시설이 완공됐지만 현재 까지 활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

정이다. 함평군이 운영하는 함평정수장의 처리 시설이 하루 1만t에 달하는데 함평지역 하루 평균 급수량은 8000t에 불과해 당장은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다. 이 때문에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

사는 공사에 투입한 차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도 지난 2014년 감사를 통해 함평군 광역상수도 설치 공사의 부적정함을 지적하고 주의조치 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광역상수도 시설 이용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1년 수립한 함평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수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정수처리 시설 하루 1만t 규모인데 계획급수량은 8000t이다.

이후 2025년과 2030년을 보면 인구 감소로 인해 점차 계획급수량도 감소할 전망이다. 함평정수장만으로도 함평지역 급수가 충분하다는 계측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광역상수도 설치 당시에는 관로가 나후에 누수가 많았지만 수자원공사가 위탁 관리하면서 누수율이 크게 줄었다”면서 “앞으로 손불면 등 생활용수 상수도 보급율이 90% 이상이 되면 함평정수장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광역상수도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영광군 300여명 참석 '청렴 골든벨'

사회복지과 김란씨 장원

영광군은 최근 300여명의 공직자가 참여 청렴 골든벨 대회를 열었다. (사진) 무안군 권익위원회 청렴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 일반상식 등 공무원이 실천해야 할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 대회에서는 사회복지과가 최우수 부서로 선발됐다. 또 예선을 거쳐 선발된 120명의 공직자가 열린 경쟁을 벌여 사

회복지과 자립복지담당 김란(6급)씨가 골든벨을 울려 포상을 받았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라며 “청렴도는 공직자의 자존심이자 성적표와도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해 청렴도 조사 결과 전반기 3위로 도약하였는데 올해는 전 공직자와 함께 청렴도 1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신안군 다문화가정 올해도 친정 간다

14가정 나들이 지원

신안군은 고향을 떠나 군민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친정 방문을 지원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8일 군청 다목적실에서 ‘다문화가족 친정 나들이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14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친정 나들이 일정 및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친정 나들이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지난 2010년부터 신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친정나들이 대상 가족은 베트남 10가정, 중국 2가정, 필리핀·캄보디아 각 1가정 등 총 14가정이다.

고길호 신안군수는 “마음 속에 항상 그리던 친정에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신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se@

무안군 내년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10건 선정

일로·청계 8개마을 등
사업비 101억원 확보
1~4년 걸쳐 사업 추진

무안군의 주민주도형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정부의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무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에 망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60억원) 등 10건이 선정돼 10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자원을 파악해 마을발전계획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자치단체와의 경쟁을 통해 확정되는 주민주도형 상향식 공모사업이다.

군은 이번엔 창조적마을만들기 공동문화·복지분야에 일로읍 소지마을 등 4개 마을(각 5억원), 경관·생태분야에 청계면 원강정마을 등 4개 마을(각 5억원), 무안군역량강화사업(1억5000만원)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은 1~4년간에 걸쳐 추진된다.

군은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2013년부터



무안군은 지난 2014년부터 주민 주도형 상향식 자체 마을 만들기인 ‘행복무안 수련마을 만들기’를 통해 해마다 10개 선도마을을 발굴하고 있다. 공모사업으로 완공한 무안 낙지거리 전경. <무안군 제공>

농산어촌개발 전담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 정부의 농촌지역 개발정책에 맞춰 조례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10년 계획을 수립했다.

2014년부터는 주민주도형 상향식 자체 마을 만들기인 ‘행복무안 수련마을 만들기’를 통해 해마다 10개 선도마을을 발굴해 오고 있다.

군은 매년 ‘행복마을 수련마을 만들기’

발표회를 거쳐 정부사업과 연결시키는 등 일련의 노력들이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2015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행복마을컨테스트 시·군 마을가꾸기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3년 해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3건(96억원), 2014년 운남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6건(96억원) 등 지난 5년간 총 34건에 58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그동안 공모사업을 통해 몽탄면 지역경관과 무안낙지거리 사업을 완료했으며, 해제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을 비롯한 19개지구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를 확대 지원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전국 제1의 살기 좋은 행복무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신안군민의 상’ 이창균·이현충씨 선정

신안군은 ‘신안군민의 상’ 수상자로 교육문화 부문에 이창균(59) 도초교 교장, 으뜸농어민에 지도읍 이현충(60) 씨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안좌면에서 열리는 ‘2017 섬들의 고향 신안 화합대축제’ 기념식 행사에서 진행된다.

교육문화상을 받은 이창균 교장은 육지에서 유학 오는 섬교육 실현이란 교육의 이정표를 제시, 제13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으뜸농어민상의 이현충 씨는 농업 기술 보급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농



이창균씨 이현충씨

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군은 군민의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 읍·면별로 수상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했으며 주무부서별로 현지확인 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쳤다. /신안=이상선기자 sslse@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